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상 공모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 지역) 내 문화유산은 무분별한 개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건축물과 유적은 사유지로서, 사라져가는 역사유적을 보호하려면 민간 부문(개인,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인식하여, 유네스코는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아-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와 관민 협력을 장려합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상(이하 문화유산보존상)은 2000년 제정 이래 아-태 지역 내 민간 또는 관민 협력 단체가 자발적인 역사 건축물과 유적의 성공적인 동시에 탁월한 보존 또는 복원사업 사례를 표창합니다.

2005년부터 유네스코방콕사무소는 '혁신 심사위원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맥락과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현대건축디자인이 뛰어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여합니다.

2000년 이후, 24개국 556건의 역사유적 보존사업이 경합한 가운데 160건이 모범적인 보존활동으로서 문화유산보존상을 수여받았고, 8건은 혁신 심사위원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수상작들은 주거 건물에서 왕궁 지구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친 역사유적 보존사업을 포괄합니다. 보존사업은 수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문화유산 보호의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문화유산보존상은 아-태 지역 내 문화유산보존에 기술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수상작들은 아-태 지역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민간 부문에게 자극의 원천이자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4년 문화유산보존상과 혁신 심사위원상 각 신청서류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문화유산보존상](#) | [혁신 심사위원상](#))